

기획진단 - 압구정동의 여성문화 ④

돈으로 말하는 문화, 금전 만능주의라는 종교

압구정동에 대한 비판 중 가장 큰 대목은 '그들'의 겹겹의 씹씹이다. '그들'의 몽타주는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함', '엄청난 가격대 직수입품의 소비층', '먹고 쓰는데 과감함' 등의 정보로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들'집단의 물적인 토대는 출세한 남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로서 태어나 물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줄을 잡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관계는 남자의 지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남자간의 위계서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집단의 일원인 50대 여성 ㄷ 씨는 자신들의 주된 일과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로 점심 때 만나 맛있는 것 먹고 노래방 가서 놀고 골프나 헬스를 즐겨요.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면 어디든 다 찾아 다녀요. 주로 강남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방에서 따로 모이죠.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는 귀신같이 알지요."

주된 일과는 '먹고 입고 쓰는 것'

요즘 상류층 주부들에게도 노래방의 인기는 대단하다고 한다. 모임이 있는 날은 점심 먹고 나서 두시간 정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 실력을 과시해야 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노래학원을 다니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다. 강남에서 상류층 주부들 사이에 이름난 노래학원은 가수 ㅅ 씨가 운영하는 ㅅ 노래학원. ㅅ 씨는 "대개 어머니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온다"고 설명했다. 개인지도는 15만원, 그룹지도는 그룹당 30만원을 받는다.

다음 이 상류층에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레저는 골프다. 여성들은 대규모 '초보운전' 집단을 형성한 데 이어 골프 인도어 연습장에 초보 훈련코스를 배우고 있다. 인도어 연습장 사용료는 50분 기준 1만4천원선, 하루에 2시간씩 친다고 계산해도 3,40만원이 연습장 사용료로만 들어간다. 그뿐이 아니다. 월10만원 정도의 레슨비, 4,50만원 하는 옷값, 코스 이용할 때의 비용 등을 계산하면 못 잡아도 1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류층 여성들의 골프 열풍은 후발주자 특유의 열정까지 가미돼 노골적인 경쟁심리를 보이기도 한다. "골프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몇명이



팀을 이뤄서 코스를 돌 때 점수가 적게 나오면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울고불고 해요. 그다음에는 코치를 데려와 연습을 많이 해요. 골프가 노인운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기과시를 위한 경쟁장이 된 것 같아요."

여성 골퍼들에게도 골프장은 비공식적인 자원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남성 지배층 인사들의 '골프장 회동'의 의미가 여성 골퍼들에게도 수용되고 있는 듯하다. ㄷ 씨는 이들의 재력을 사회적인 좋은 일에 끌어모아야 할 경우에 골프장에서 얘기를 잘하면 쉽게 모금을 할 수 있다고 경험담을 말해 주기도 했다. 사회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기에 골프장이라는 환경은 유효했다. ㄷ 씨의 골프 친구들은 ㄷ 씨의 말을 듣고 흔쾌히 그 자리에서 1백만원씩의 돈을 선뜻 기부해 주기도 했다.

이들에게도 패션은 중요하다. 몸매 관리와 피부관리, 젊어지기 위한 성형술 등에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들이다. 그러나 이 집단에서 이러한 '바디컬처'적 화려함은 자기과시, 자기 확인의 의미를 주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저 사람이 멋있게 입을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멋진 패션은 개성이 아니라 교양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패션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쥐고 있는 집의 부인들 이삼십명이 모이는 모임이 었그제 있었어요. 서로 상대방의 패션을 칭찬해 주지만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만 잘 입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잘 입으니까요. 백화점에만 나가면 멋진 옷을 언제나 사 입을 수 있고 늘 외국 여행을 가니까 나가서 다 사와요. 보석 약세사라도 충분히 있어요.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은 큰 루비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1억8천만원짜리래요. 다이아 반지 정도는 얘기꺼리도 안되는 거죠. 딸 한테도 몇십만원씩

하는 속옷을 사 입혀요."

이들이 소유한 값비싼 옷과 보석 장신구는 아무리 상류층이라 해도 주부의 생활반경을 가져야 하는 이 여성들로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다. "헬스 클럽에 오면서도 보석을 있는대로 하고 와서 사우나 하고 그걸 다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리는" 장면이 목격될 만큼 이들의 치장용품은 흘러넘친다.

이들에게 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들처럼 돈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없다. 이들은 40년대, 50년대 우리사회의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이삼십대에 경제발전을 매우 성공적으로 체험했다. 경제가 얼마나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경험한 것이다. 이 경제의 기적이 노동과 인내의 가치를 확인하는 경험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이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을 '확실한 것은 돈 밖에 없다'는 배금주의 교리를 체화하는 것으로 소화한 이들은 가장 정확한 한국인의 초상일지도 모른다.

"가난을 알기 때문에 가난을 부정할 수 있는 소비에 더 매달리는지도 모르죠. 어딜 가도 공중도덕은 없고 사회적 의식도 없고 물질적인 것만 쥐려고 해요. 사회운동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분위기예요. 교회 가서는 많이 내지만 그것도 자기 헌신의 수준은 아니예요" 이 집단의 일원이면서 이 집단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ㄷ 씨는 이렇게 자아비판을 하고 있다.

소비수준이 유일한 기준, 정신문화 없어

자기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나, 자기 몸에 걸쳐지는 옷이나, 자기 쾌락을 가져오는가, 자기자식을 위해 쓰여지든가..., 자기 몸과 직결되는 효용이 있어야 투자의 동기가 생기는 사람들, 사회 공동체를 위한 투자에는 무지하고 인식하기

없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상류층의 주류를 이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국사회의 상류층은 아무리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문화를 가진다. 몸가짐, 언어, 대화법을 세련화시키고 또 사회단체 기부는 보편화된 미덕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상류층은 자기들을 구분짓을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소비수준이 유일한 기준이 될 뿐이다.

"헬스 클럽에 가도 연속극부터 보고 시작해요. 대화 주제도 맨 연속극 얘기, 자기 애 과외 선생님 얘기, 먹는 얘기... 다 그래요. 책 이야기나 사회문제가 대화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화행사를 함께 하는 일도 없어요. 내 눈에 제일 거슬리는 건 공중도덕이 없다는 거예요. 고급 사우나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함께 쓰는 물건인데도 자기만 쓰고 아무데나 두고 아무데나 마구 버려요. 난 들어가자마자 그 들어놓은 거 제자리 찾아놓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참 화가 나요."

이들은 자신들이 여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산 행복한 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비싼 옷 마음대로 사 입고, 외국여행 다닐 수 있고, 골프 치고... 하는

물질의 향락이 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증거가 된다. 이들의 눈에는 아무리 사회에서 유명인사로 존경받는 전문직 여성이라고 해도 "파출부인지 교수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직장여성들이 조금치도 부럽지 않다. ㄷ 씨는 파트타임에 해당하는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사람에 속한다. 이들의 머리 속에는 여자의 행복은 출세한 남자를 만나는 데서 시작한다.

가부장제 지배문화의 한 현상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의 판단은 현명하다. 아무리 뛰어난 여성이라고 해도 이 사회의 중심부에 여성이 설 자리는 그리 넉넉하지 않다. 선부르게 야심을 부리다간 상처받고 허물어지기 십상이다. 이에 비해서 유능한 남자의 안사람으로 선발되기 위한 노력은 확실한 투자 가치를 보장해준다. 이 안전한 투자의 길에는 가부장제 사회가 보증을 서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압구정' 상류사회의 여성문화는 가부장제 지배문화의 현상이다. 상류층 남자의 아내로서 걸맞는 여성적 자원을 개발해 '압구정동 본부인'이 되기에 성공한 이들의 모습은 '안사람 문화'의 극한치를 보여주는 모델일지도 모르겠다.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90년대식 '마나님 문화'는 여성문화의 전망이 될 수 있을까? 독립적인 아이덴티티를 지향하는 주체적인 여성문화에 대한 가부장적 '안사람 문화'의 압승! 이것이 '압구정'식 여성문화의 유토피아일 수 있을 것이다. (김효선 기자)